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7. 29.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약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 하니
내 모든 것 내어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코러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브릿지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예레미야 29장 11~14절

다 같이

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말씀 나눔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인 도 자

우리는 때로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들은 그저 돈에 대한 생각,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생각만 골똘히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잘되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소망, 이루어지고야 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을 삶의 대안으로 삼아 평안과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 또한 절기를 통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만큼 중요한 말도 없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회복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그 말씀에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영적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 이것이 안 풀린다, 저것이 안 풀린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아 영적으로 변화되는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의 굴레에 감겨 있으며 구덩이 속에 빠졌는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농 다 같 이

- 1.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가장 붙들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2.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2~14절)**
- 3.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중 보 기 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 이

-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 2.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 3.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 4.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 5. 한국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가정, 관계와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